

## 여성의 피부유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최은영 · 나영순\* · 백승화\*\*

김천과학대학 피부미용과\* 청양대학 피부미용과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천연물학교실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women of skin type

Eun Young Choi, Young Soon Na\*, Seung Hwa Baek\*\*

*Department of Beauty and Skin Care, Kimcheon Science College, Kimcheon 740-200, Korea*

*\*Department of Skin Beauty Art, Chongyang Provincial College, Chongyang 345-800, Korea*

*\*\*Department of Natural Product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ksan 570-749, Korea*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factors influencing on women of skin type using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159 women from July 1 to August 22, 1998. In results of stepwise logistic analysis, these factors was shown significant habit of practice and skin care experience ( $p<0.05$ ). Groups which did not practice showed the probability of 13.49 times in neutral skin.

Groups which experienced skin care showed the probability of 5.16 times in neutral ski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t was to develop the instrument for measurement of skin type.

Key Words :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stepwise logistic analysis, skin care experience, neutral skin

## 1 . 서 론

피부란 인체의 외부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외계(外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신의 대사(代謝)에 필요한 생화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이다.<sup>1)</sup> 따라서 신체에 영향을 주는 외적요인들인 온도의 변화(더위, 추위), 습기, 먼지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피부의 상태는 인체의 건강, 호르몬의 분비, 내장 등의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 등의 내적 요소와 계절, 기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외적인 요소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

는 것이 화장품이다.<sup>2)</sup> 이상적인 화장품이라면 피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테크닉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지만, 피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후조건이나 환경, 식생활, 의류, 몸의 상태, 잘못된 스킨케어 등에 영향을 받아 미묘하게 반응한다.<sup>3)</sup> 다시 말해서 피부는 자신의 생활이나 건강상태를 비추어 내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의 패턴(pattern)을 알고 그 조건에 맞는 스킨케어 용품을 선택하거나 적절한 피부손질을 행하여야 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기초 피부 손질을 중요시해야 하며 어떤 피부에 있어서나 세안(cleansing), 마사지(massage), 피부정리, 피부상태에 적절한 영양공급 그리고, 팩(pack) 등은 가장 기본적인 피부손질로서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여성들은 자신의 피부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과대광고나 선전책자에 현혹되어 기초화장품은 물론 피부관리 제품을 구입하여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현대에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공해 등 인체에 해로운 여러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생활방식의 변화로 정신적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우리의 건강에 대한 장애요인이 많이 발생한다. 여성 건강관리에 있어서 특히 피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여성들의 피부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형태와 피부상태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학적인 차원에서 피부관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5)</sup>

## II . 실험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여성들의 피부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 1998년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연구에 응한 15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관한 문항을 조사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조정요인

연구 대상자의 조정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행동적 요인을 포함시켰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결혼유무, 출신지역 등이며 생물학적 요인은 키, 신체건강상태, 성생활만족도, 몸매 등이다. 행동적 요인은 생활습관을 의미하며 음주, 흡연, 식습관, 운동습관 등이다.

### 3. 분석방법

피부유형상태와 각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과 분산분석 (ANOVA)를 이용하였고 피부유형상태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II .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여성의 피부유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임의로 추출한 여성을 대상으로 1998년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의 분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1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 학력, 직업, 경제상태, 결혼상태, 출신지 등에 관한 것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10대가 4명(2.5%), 20대가 127명(79.9%)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17명(10.7%), 40대가 6명(3.8%), 50대가 5명(3.1%)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107명(67.7%)으로 가장 높았고 무학 2명(1.3%), 중졸 6명(3.8%), 고졸 43명(27.2%)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87명(54.7%)로 약 반수였고 주부 22명(13.8%), 전문기술직 20명(12.6%), 공무원 4명(2.5%), 회사원 11명(6.9%), 판매서비스업 8명(5.0%), 무직 2명(1.3%), 기타 5명(3.1%)으로 조사되었다. 자가판단 경제상태는 중류층이 80명(51.6%)이었고 상류층 4명(2.6%), 중상층 32명(20.6%), 중하층 29명(18.7%), 하류층이 10명(6.5%)였다. 결혼상태는 미결혼이 126명(79.7%)로 가장 많았고 결혼이 31명(19.6%), 독신(이혼, 별거,사별)이 1명(0.6%)이었다.

출신지역은 대도시(특별시, 직할시)가 41명(25.8%), 중소도시 61명(38.4%), 읍·면이 57명(35.8%)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항목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

항 목	구 분	인원수	비 율(%)
연 령	10 - 19	4	2.5
	20 - 29	127	79.9
	30 - 39	17	10.7
	40 - 49	6	3.8
	50 - 59	5	3.1
	60 이상		
학 력	무 학	2	1.3
	초등학교		
	중 학 교	6	3.8
	고등학교	43	27.2
	대학교 이상	107	67.7
직 업	주 부	22	13.8
	농·축·어업		
	전문기술직	20	12.6
	공 무 원	4	2.5
	회 사 원	11	6.9
	직장근로자		

항 목	구 분	인원수	비 율(%)
	판매서비스업	8	5.0
	학 생	87	54.7
	무 직	2	1.3
	단순노무직		
	기 타	5	3.1
경제상태	상	4	2.6
	중상	32	20.6
	중	80	51.6
	중하	29	18.7
	하	10	6.5
결혼상태	미 결혼	126	79.7
	결 혼	31	19.6
	독신(이혼, 별거, 사별)	1	0.6
출신지역	대도시(특별시,직할시)	41	25.8
	중소도시	61	38.4
	읍·면	57	35.8

2) 조사 대상자의 생물학적 요인의 분포

조사대상자의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키,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몸매상태, 성생활 만족도, 피부건강상태, 피부유형상태 등에 관한 것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키는 160-164cm가 71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150-154cm가 14명(8.8%), 155-159cm가 31명(19.5%), 165-169cm가 29명(18.2%), 170cm 이상이 14명(8.8%)이었다. 자가판단에 의한 건강상태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69명(43.9%)으로 가장 높았고,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가 62명(39.5%), 나쁘다고 생각한다고는 15명(9.6%), 아주 좋다는 10명(6.4%)이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몸매상태는 보통이 70명(44.6%)으로 가장 높았고, 48명(30.6%)이 약간 뚱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36명(22.9%)이 마른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42명(57.5%)이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다고 응답하였고, 만족한다는 22명(30.1%), 매우 만족한다는 5명(6.8%), 불만족은 3명(4.1%)이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피부건강상태는 보통이 76명(48.4%),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47명(29.9%), 좋다고 생각한다고 28명(17.8%), 잘 모르겠다가 6명(3.8%)이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얼굴피부유형은 건성 피부가 30명(19.2%), 지성 피부가 44명(28.2%), 중성 피부가 35명(22.4%), 복합성 피부가 41명(26.3%)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생물학적 요인의 항목별 구성, 인원, 백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생물학적 요인의 분포

항 목	구분 (cm)	인원수	비율 (%)
키	150-154	14	8.8
	155-159	31	19.5
	160-164	71	44.7
	165-169	29	18.2
	170 이상	14	8.8

항 목	구분 (cm)	인원수	비율 (%)
건강상태 (자가판단)	아주나쁨	1	0.6
	나쁨	15	9.6
	나쁘지도 좋지도 않음	62	39.5
	좋음	69	43.9
	아주 좋음	10	6.4
몸매 (자가판단)	매우 비만	3	1.9
	약간 뚱뚱한 편	48	30.6
	보통	70	44.6
	마른 편	36	22.9
성생활 만족 (자가판단)	매우 불만족	1	1.4
	불만족	3	4.1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42	57.5
	만족	22	30.1
	매우 만족	5	6.8
피부건강상태 (자가판단)	나쁘다고 생각	47	29.9
	보통이다	76	48.4
	좋다고 생각	28	17.8
	잘 모르겠다	6	3.8
얼굴피부유형 (자가판단)	건성	30	19.2
	지성	44	28.2
	중성	35	22.4
	복합성	41	26.3
	모르겠다	6	3.8

3) 조사 대상자의 행동적 요인의 분포

조사 대상자의 행동적 요인과 관련하여 흡연, 음주, 수면 습관 등에 관한 것을 조사하였다.

흡연 습관의 경우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143명(92.9%), 1-4개피 정도는 2명(1.3%), 5-9개피는 5명(3.2%), 15-19개피는 1명(0.6%), 1갑 이상이 3명(1.9%)으로 조사되었다. 음주 습관의 경우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94명(62.3%), 주 2-3회 정도가 52명(24.4%), 거의 매일이 5명(3.3%)이었다. 하루 평균 수면량의 경우 5시간 이하가 8명(5.0%), 5-10시간이 139명(87.4%), 10-15시간이 12명(7.5%)으로 조사되었다. 운동 습관의 경우는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101명(63.5%), 주 1회가 23명(14.5%), 주 2-3회가 20명(12.6%), 주 4-5회가 5명(3.1%), 매일 한다가 10명(6.3%)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행동적 요인의 항목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행동적 요인의 분포

항 목	구 분	인원수	비율 (%)
흡 연	안 핀 다	143	92.9
	1-4 개피	2	1.3
	5-9 개피	5	3.2
	10-14 개피	1	0.6
	15-19 개피		
	1 갑이상	3	1.9
	2 갑이상		

항 목	구 분	인원수	비율 (%)
음 주	안한다	94	62.3
	주 2-3회	52	34.4
	주 3회 이상		
	거의 매일	5	3.3
하루 평균 수면량	5 시간 이하	8	5.0
	5-10 시간	139	87.4
	10-15 시간	12	7.5
	15 시간 이상		
운 동 습 관	거의 안한다	101	63.5
	주 1회	23	14.5
	주 2-3회	20	12.6
	주 4-5회	5	3.1
	매일한다	10	6.3

#### IV . 고 찰

##### 1.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피부건강상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결혼상태 항목이다 ( $p < 0.05$ ). 결혼을 하지 않은 군은 지성피부가 많았고, 결혼군에서는 건성피부가 많았다. 연령의 경우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30세 미만에서는 지성피부가 많았고 30세 이상에서는 건성피부가 많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4.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단위 : 명(%)

구 분		건 성	중 성	지 성	계	$\chi^2$	p값
연 령	30세 미만	25 (26.0)	30 (31.3)	41 (42.7)	96 (100.0)	5.341	0.069
	30세 이상	7 (58.3)	2 (16.7)	3 (25.0)	12 (100.0)		
학 력	대졸미만	8 (34.8)	6 (26.1)	9 (39.1)	23 (100.0)	0.513	0.774
	대졸이상	23 (27.4)	26 (31.0)	35 (41.7)	84 (100.0)		
직 업	주 부	6 (66.7)	2 (22.2)	1 (11.1)	9 (100.0)	7.666	0.105
	학 생	18 (24.3)	24 (32.4)	32 (43.2)	74 (100.0)		
	직장인	8 (32.0)	6(24.0)	11(44.0)	25 (100.0)		
경 제 상 태	상	8 (33.3)	7 (29.2)	9 (37.5)	24 (100.0)	2.284	0.684
	중	14 (29.2)	17 (23.5)	17 (35.4)	48 (100.0)		
	하	9 (26.5)	8 (23.5)	17 (50.0)	34 (100.0)		
결 혼 상 태	미 혼	23 (25.0)	29 (31.5)	40 (43.5)	92 (100.0)	7.624	0.022*
	결 혼	9 (60.0)	3 (20.0)	3(20.0)	15(100.0)		

\*P<0.05

### 2. 생리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생리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없었다. 생리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표 5. 생리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단위 : 명 (%)

구 분	건 성	중 성	지 성	계	$\chi^2$	p값	
키	160미만	13(39.4)	6(18.2)	14(42.4)	33(100.0)	4.443	0.349
	160-165	10(21.7)	17(37.0)	19(41.3)	46(100.0)		
	165이상	9(31.0)	9(31.0)	11(37.9)	29(100.0)		
건강 상태	나쁨	5(45.5)	1(9.1)	5(45.5)	11(100.0)	8.728	0.068
	보통	7(17.1)	18(43.9)	16(39.0)	41(100.0)		
	좋음	19(34.6)	13(23.6)	23(41.8)	55(100.0)		
몸매 (자가판단)	뚱뚱한 편	10(28.6)	13(37.1)	12(34.3)	35(100.0)	5.341	0.254
	보통	14(29.8)	9(19.2)	24(51.1)	47(100.0)		
	마른 편	8(30.8)	10(38.5)	8(30.8)	26(100.0)		
성생활 만족	보통	9(32.1)	8(28.6)	11(39.3)	28(100.0)	0.579	0.749
	만족	8(42.1)	4(21.1)	7(36.8)	19(40.4)		

### 3. 행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행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운동습관이었다 ( $p < 0.05$ ). 운동을 하는 군에서는 지성피부가 많았고 운동을 안하는 군에서는 중성피부가 많았다. 행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는 표 6과 같다.

표 6. 행동적 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단위 : 명 (%)

구 분	건 성	중 성	지 성	계	$\chi^2$	p값	
흡 연	안한다	29(29.9)	28(28.9)	40(41.2)	97(100.0)	0.425	0.809
	한 다	2(33.3)	1(16.7)	3(50.0)	6(100.0)		
음 주	안한다	19(30.7)	17(27.4)	26(41.9)	62(100.0)	0.146	0.929
	한 다	11(28.2)	12(30.8)	16(41.0)	39(100.0)		
하루 평균 수 면 량	5시간 이하	2(28.6)	2(28.6)	3(42.9)	7(100.0)	2.494	0.646
	5-10시간	27(29.7)	29(31.9)	35(32.4)	91(100.0)		
	10시간 이상	3(30.0)	1(10.0)	6(60.0)	10(100.0)		
운동 습관	안한다	20(27.8)	29(40.3)	23(31.9)	72(100.0)	12.618	0.002*
	한 다	12(33.3)	3(8.3)	21(58.3)	36(100.0)		

\*  $p < 0.05$

### 4. 인지-지각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인지-지각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인지된 피부건강상태와 인지된 얼굴피부유형이었다. 자신의 피부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군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군은 지성피부가 많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군에서는 건성피부가 많았다 ( $p < 0.05$ ). 인

지된 얼굴피부유형의 경우 자신이 건성이라고 생각한 군은 실제로도 건성피부가 많았고, 중성피부라고 생각한 군은 지성피부가 많았으며, 지성이라고 생각한 군은 지성피부가 많았다( $p>0.05$ ). 인지-지각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는 표 7, 8과 같다.

표 7. 인지-지각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단위 : 명 (%)

구 분		건 성	중 성	지 성	계	$\chi^2$	p값
인지된 피부건강상태	나쁘다고 생각	8 (27.6)	3 (10.3)	18 (62.1)	29 (100.0)	12.183	0.016*
	보 통	14 (25.5)	20 (36.4)	21 (38.2)	55 (100.0)		
	좋다고 생각	10 (41.7)	9 (37.5)	5 (20.8)	24 (100.0)		
인지된 얼굴피부유형	건 성	14 (58.3)	6 (25.0)	4 (16.7)	24 (100.0)	21.465	0.001***
	중 성	16 (27.6)	20 (34.5)	22 (37.9)	58 (100.0)		
	지 성	2 (8.0)	5 (20.0)	18 (72.0)	25 (100.0)		

\* $p<0.05$  \*\*\* $p<0.001$

표 8. 인지-지각요인과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구 분	건 성		중 성		지 성		p값
	N	M ± S.D.	N	M ± S.D.	N	M ± S.D.	
지각된 피부건강통제위점수	31	19±4.53	31	20±3.39	42	19±3.69	0.6131
자아의 인식(자아만족도) 점수	30	15±3.53	31	15±3.22	42	15±3.13	0.8581
피부건강행위의 지각된 유익성	30	28±4.26	31	28±3.57	42	28±3.32	0.4559

### 5. 피부건강행위 필요성 인식 · 실천도 점수와 피부유형상태

피부건강행위 필요성 인식 및 실천도 점수와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건강행위 필요성 인식 및 실천도 점수와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는 표 9와 같다.

표 9. 피부건강행위 필요성 인식정도 및 실천도 점수와 피부유형상태와의 관계

구분 항목	건 성		중 성		지 성		p값	
	N	M ± S.D.	N	M ± S.D.	N	M ± S.D.		
필요성인식	건강관리	31	40±9.90	31	41±6.45	42	38±10.05	0.4559
	피부관리	30	38±10.53	31	37±6.82	39	37±9.14	0.8056
	전체 피부건강관리	31	77±21.26	31	77±11.81	42	73±21.47	0.4485
실 천 도	건강관리	31	32±6.92	31	30±8.30	42	30±6.89	0.4624
	피부관리	31	29±11.35	31	27±6.93	39	29±8.33	0.5507
	전체 피부건강관리	31	61±14.36	31	57±12.10	42	57±15.64	0.4025

### 6: 피부유형상태에 관계된 요인의 단계별 로지스틱 분석

피부유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는데 명목변수들인 독립변수들은 더미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동습관과 피부관리 경험유 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을 할 경우 중성피부가 아닐 확률이 13.49배 높았고 ( $p<0.05$ ), 피부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 중성피부가 아닐 확률이 5.16배 높았다 ( $p<0.05$ ). 피부



유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표 10과 같다.

표 10. 피부유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단계별 로지스틱 분석

변수	코드	구분	Parameter estimate	표준오차	p값	Odds ratio
종속 변수	0	중성이 아닌 피부				
	1	중성피부				
독립 변수	0	30세 미만	0.0	1.6	0.9788	1.043
	1	30세 이상				
직업	0(기준)	주부	-0.3	2.2	0.8776	0.716
	1	직장인	0.4	0.9	0.6969	1.434
경제상태	0(기준)	상	-1.3	0.9	0.1399	0.266
	1	중	0.6	0.8	0.4908	1.736
결혼상태	0	결혼				
	1	미결혼	-0.3	0.8	0.8843	0.778
건강상태	0	건강이 좋지 않음				
	1	건강이 좋음	0.7	1.7	0.3319	2.070
건강상의 문제	0	건강에 문제 없음				
	1	건강에 문제 있음	0.7	0.8	0.5645	1.940
흡연유무	0	비흡연				
	1	흡연	1.3	1.1	0.4322	3.825
음주유무	0	술 안마심				
	1	술 마심	-0.3	1.7	0.7289	0.773
수면량	0(기준)	5시간이하	-0.4	1.2	0.7197	0.645
	1	5-10시간	0.4	1.3	0.7794	1.436
운동습관	0	운동 안함				
	1	운동함	2.6	0.9	0.0039**	13.485
피부관리경험유무	0	피부관리경험없음				
	1	피부관리경험있음	1.6	0.8	0.0455*	5.163
피부건강교육참석의향	0	교육 참석 안함				
	1	교육 참석함	1.1	0.8	0.2143	2.859
피부건강행위필요성인식			-0.0	0.0	0.2911	0.976
피부건강행위실천도			0.0	0.0	0.3384	1.032
지각된 피부건강통제위			-0.1	0.1	0.2736	0.880
피부건강행위의 지각된 유익성			0.0	0.1	0.7615	1.040
자아인식도			-0.1	0.1	0.2952	0.885
식습관			0.0	0.1	0.6386	1.042

\* p<0.05 \*\* p<0.01

## V . 결 론

피부유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의 통제 후 단계별 로지스틱 분석 결과, 운동습관과 피부관리 경험유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을 안하는 군이 중성피부일 확률은 13.49배 높았다 (p<0.05). 피부관리 경험이 있는 군이 중성피부일 확



7. 귀하의 키는?

- ① 150-154 ( )                      ② 155-159 ( )                      ③ 160-164 ( )
- ④ 165-169 ( )                      ⑤ 170 이상 ( )

8.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 ① 아주 나쁨 ( )   ② 나쁨 ( )   ③ 나쁘지도, 좋지도 않음 ( )   ④ 좋음 ( )   ⑤ 아주 좋음 ( )

9. 당신은 현재 어떤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심장병 ( )
- ② 고혈압 ( )
- ③ 관절염 또는 류마티즘 ( )
- ④ 암 ( )
- ⑤ 폐질환 (폐기종 또는 만성 기관지염)
- ⑥ 당뇨병 ( )
- ⑦ 백내장 ( )
- ⑧ 중풍 ( )
- ⑨ 골절상 ( )
- ⑩ 만성 신경성 또는 정서문제 ( )
- ⑪ 만성적인 발 혹은 발목의 병 (건막류, 발톱이 안으로 자람) ( )
- ⑫ 직장(直腸) 종양, 항문출혈 ( )
- ⑬ 파킨즈병 ( )
- ⑭ 기타 (쓰시오)

현재 아프거나 질병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진단이 무엇입니까?

10. 하루 흡연량은?

- ① 안핀다      ② 1~4개피      ③ 5~9개피      ④ 10~14개피      ⑤ 15~19개피
- ⑥ 1갑 이상      ⑦ 2갑 이상

11. 음주를 하십니까?

- ① 안한다      ② 주 2~3회      ③ 주 3회 이상      ④ 거의 매일

12. 하루 평균 수면량은?

- ① 5시간 이하      ② 5~10시간      ③ 10~15시간      ④ 15시간 이상

13.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십니까?

- ① 거의 안한다      ② 주 1회      ③ 주 2~3회      ④ 주 4~5회      ⑤ 매일한다

14. 다음은 당신의 피부유형을 판별하기 위한 질문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정확하게 V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세안 후 6시간 후의 피부의 감촉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조 또는 어느정도 건조	<input type="checkbox"/> 별 변화없다. 촉촉하나 건성, 지성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이마와 코, 턱은 지성, 뺨과 얼굴 양옆은 건성으로 느낀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oily
---	--	--	----------------------------------

② 액상타입의 foundation(화운데이션)을 바른 다음 3시간 후의 얼굴 피부의 느낌은?

<input type="checkbox"/> 칙칙하고 번들거리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부드럽고 매끄럽다. 칙칙하거나 번들거리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T-zone(이마,코,턱) 중 일부가 번들거린다.	<input type="checkbox"/> 아주 번들거린다.
--	--	--	------------------------------------

③ 얼굴에 여드름이 돋는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런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아주 드물게난다. 특히 월경 전후에	<input type="checkbox"/> 눈 주변과 입술	<input type="checkbox"/> 언제나 돋는다.
-------------------------------------	--	-----------------------------------	-----------------------------------

④ 표정을 지을때마다 생긴 주름이 점점 자리잡아간다.

<input type="checkbox"/> 입,눈,이마 주위에	<input type="checkbox"/> 나이가 들면서 눈 주위에 아주 희미하게	<input type="checkbox"/> 눈 주위와 입 언저리에 약간	<input type="checkbox"/>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곤 한다.
-------------------------------------	--	--	--

⑤ 얼굴의 모공(pore) 상태는?

<input type="checkbox"/> 아주 작아서 잘 안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아주 작은것부터 중간크기,보통크기 까지 얼굴전체에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중간에서 큰것까지 때로 눈에 확연히 보일만큼 큰 것이 T-zone(이마,코,턱)에 있다.	<input type="checkbox"/> 큰 것이 특히 T-zone과 뺨에 많다.
---	---	--	---

⑥ 5년전과 비교해 지금의 얼굴은?

<input type="checkbox"/> 아주 조금 건조해졌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건조해졌다.	<input type="checkbox"/> 뺨과 얼굴 양쪽 옆부분만 건조해졌다.	<input type="checkbox"/> 느낄만큼 건조하지 않고 오히려 지성이 되었다.
---------------------------------------	------------------------------------	---	--

⑦ 어떤 화장품이든 바르면 땀기고 건조한 느낌인가?

<input type="checkbox"/> 자주 느낀다.	<input type="checkbox"/> 아주 춥거나 건조할때 때때로 느낀다.	<input type="checkbox"/> 양뺨과 얼굴 옆부분에 느낀다.	<input type="checkbox"/> 거의 안 느낀다.
----------------------------------	---	---	------------------------------------

⑧ 얼굴의 어느 한 부분이 점차 oily 해지는가?

<input type="checkbox"/> 드물게	<input type="checkbox"/> 덥거나 습기 많은 날 때때로	<input type="checkbox"/> 보통때 T-zone	<input type="checkbox"/> 언제나 그렇다.
------------------------------	--	-------------------------------------	-----------------------------------

⑨ 피부가 뜬다.

<input type="checkbox"/> 얼굴과 손이 빈번하게 뜬다.	<input type="checkbox"/> 아주 건조하거나 추운날, 때때로 손과 얼굴이 뜬다.	<input type="checkbox"/> 양뺨과 얼굴 양 옆부분이, 또 손도 가끔 뜬다.	<input type="checkbox"/> 거의 그렇지 않지만 아주 건조하고 추운날 손이 뜬다.
--	---	---	--